

Pay-TV 'Premiere'의 위기: 머독의 기회

주요 내용

1. 독일 방송 시장, 외국 기업이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진출 자유로워
 - RTL 방송사: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RTL 그룹(다국적 미디어그룹)
 - 외국 기업이나 다국적 미디어그룹에 운영권이 넘어간 방송사
 - Sat1, ProSieben, Vox, 뉴스 채널 N24, Kabel1, 유료 방송 Premiere
2. Premiere의 위기, 생존 절실
 - 2008년 적자 2억 6,940만 유로(2007년의 5배)
3. Premiere 지분 26% 소유한 News Corp.의 머독, 지분 100% 확대 의사 발표
 - 지분 확대 조건으로, Bafin의 의무조항 해지 요구
 - Bafin, Newx Corp.의 Premiere 주주에 대한 의무조항 한시 해지 발표
 - 2009년 1월 주주 총회로 Premiere, News Corp.로 넘어감
4. News Corp.의 Premiere 희생 전략
 - 1차작으로 News Corp. 산하의 Fox사 인기 프로 <Lost> 독점 제공
 - 2009/2010 분데스리가 인터넷 ald PPV 서비스 제공

독일 방송 시스템에 민영방송이 도입된 이후 독일 방송 시장에 외국 기업이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독일 민영방송사에 대해 지분을 소유하거나 독일에 방송사를 차리는 것은 이제 낡은 모습이 아니다. 독일에 방송사를 차린 대표적인 경우는 'RTL' 방송사로,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RTL Group'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 국가에 방송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미디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RTL Group'의 지분의 90%를 독일의 다국적 기업인 'Bertelsmann AG'가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방송사라고는 볼 수 없다. 외국 미디어 기업이 기존에 있는 민영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키르히 미디어 그룹이 와해된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외국 기업이나 외국 미디어 그룹으로 운영권이 이전된 방송사 중에 의미 있는 시청료를 내는 방송사들은 Sat.1·ProSieben·Vox, 뉴스 전문 채널인 N24·Kabel1이고, 이외에도 유료 방송인 Premiere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독일 최대 미디어그룹인 키르히 파산 이후, 외국 미디어 기업의 진출 활발

독일은 외국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독일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서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유럽 최대의 방송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독일 시장에 균침을 흘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국계 글로벌 그룹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방송사에 대한 소유가 가능해진 것은 1990년대 말 50년간 독일 미디어 업계의 대부로 군림했던 레오 키르히(Leo Kirch)의 미디어 기업의 파산을 통해서였다. 당시 독일의 민영방송 시장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키르히 그룹’은 민영방송 채널인 ProSiebenSat.1·Deutsches Sportsfernsehen·Kabell, 뉴스 전문 채널인 N24 등 다수의 채널을 Free TV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Pay TV인 Premiere를 소유하고 있던 미디어 재벌 기업이었다. 하지만 키르히 그룹이 Free TV 시장 경쟁력이 높은 독일 방송 시장에서 Pay TV 시장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부작용이 나기 시작했다.¹⁾ Free TV에 대해 Pay TV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키르히 그룹은 시청자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 축구경기에 대한 방영권을 획득하는 데 막대한 경비를 지출했다. 그러나 Pay TV의 경쟁력은 기대 이하였고, 1998년부터 키르히 미디어 기업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할 정도로 Premiere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레오 키르히는 독일 미디어 업계의 큰 영향력으로 주정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고 증시가 폭락하면서 은행에서는 대출된 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거기에 글로벌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News Corp.과 독일의 Springer 기업이 키르히 기업의 주식을 매입했고, 주식을 매각하면서 지분을 요청했다. 양공 작전에 지분 능력이 떨어진 키르히 기업은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렇게 키르히 그룹이 와해되면서 그룹에 속해 있던 방송사들이 외국 자본 회사나 미디어 그룹의 소유에 들어갔다. ProSiebenSat.1 방송사와 Premiere는 각각 다른 기업의 소유로 넘어갔다. ProSiebenSat.1사는 Permira & KKR이라는 기업에서 인수하였다.

머독의 관심과 Premiere의 위기

Pay TV인 Premiere는 2008년 초에 머독의 News Corp.이 26%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말에 머독은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Premiere의 지분을 100%로 늘려 사실상 Premiere를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Sued Deutsche Zeitung>에서 밝혔다.²⁾ 물론 News Corp.에서는 지분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보장할 것과 독일 연방 재정감독

1) Kirschning, Thomas: “Deutschland s Medienmarkt wird neu aufgeteilt”, 2002년 2월 7일, in: <http://www.dw-world.de/dw/article/0,,437725,00.html>

2) “Murdoch will Premiere komplett schlucken”. 2009년 2월 9일자, URL: www.digitalfernsehen.de/news/news_729992.html

기관(Bundesanstalt fue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에서 요구하는 의무조항을 해지해 달라는 것이다. Bafin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조항은 기업이 한 방송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30%를 넘는 지분에 대해 지분 소유를 제외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것은 어떤 기업이 미디어 기업에 과도한 지분 소유로 일방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Bafin은 머독의 요구를 받아들여 News Corp.가 Premiere 주주에 대한 의무조항을 한시적으로 풀어 준다고 지난 1월 말에 발표하였다. 이렇게 Bafin에서 예외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Pay TV인 Premiere가 심각한 재정 악화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한 해 동안 유료 TV인 Premiere은 잠금장치의 문제와 높은 프로그램 비용으로 기록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2월 16일에 발표하였다.³⁾ 적자폭은 2007년의 적자인 5,160만 유로보다 다섯 배나 높은 2억 6,940만 유로에 달한다. 그에 비해 매출액은 9억 3,720천만 유로에서 9억 4,110만 유로로 약간 상승한 것에 그쳤다. 특히 잠금장치에 생긴 문제로 작년에 많은 구독자를 잃어버렸다. 지난해 12월까지 구독자 수는 250만 정도에서 240만이 채 안 되게 줄었다. 그러나 Premiere에서는 2009년 상반기에는 구독자 수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분데스리가 시즌이 시작된 후 가을에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분데스리가 방영권은 이미 작년 11월에 확보해 둔 상태다. Premiere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300만에서 340만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Premiere의 재정 악화에 대해 머독은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⁴⁾ 예정된 4억 1,000만 유로의 자본 증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승인될 경우 News Corp. 측에서도 증자에 대한 완전 보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Premiere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보장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은행 측에서 신용대출을 해 주면 재정악화가 된 상황에서 단비가 내리는 것이다. 은행 측에서는 증자를 하는 조건으로 5억 2,500만 유로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⁵⁾ 즉, 머독이 4억 5,000만 유로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Premiere는 이미 1월에 4,000만 유로를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주주들이 충분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News Corp.는 Premiere의 50%가 넘는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Premiere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주 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고, 결국 증자를 허용한다는 입장이 타결되었다. 이것으로 Premiere가

3) "Premiere fährt 2008 Rekordverlust ein-Abonnentenzahl sinkt". 2009년 2월 16일자.
URL: www.premiere.de

4) "News Corp. will Premiere-Sanierung nicht allein zahlen", 2009년 3월 2일자.
URL: <http://www.infosat.de/Meldungen/?msgId=51393>

5) "Premiere:Bafin befreit News Corp. von Pflichtangebot". 2009년 1월 31일자.
URL: www.infosat.de/Meldungen/?msgId=51356

News Corp.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보장되었다. 이런 소식에 Premiere는 주가는 반짝 상승했다.

이렇게 새로운 재원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Premiere가 올해와 내년에 흑자를 볼 것이라고 News Corp. 측에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예상대로라면, Premiere는 2011년에야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

‘Premiere’: ‘News Corp.’의 독일 상륙의 기점

News Corp.가 Premiere의 대주주가 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News Corp.가 독일 유료TV 시장에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즉각 갖게 된다는 것이다. 지배적인 미디어 시장에서의 복잡한 소유 관계로 인해 다국적 미디어 기업이 미디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규제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독일 Pay TV 플랫폼인 Premiere는 기존에 있는 시장 지배와 내용, 접속 기술 그리고 구독자 관리 체계 분야에서 News Corp.과의 종적 사업 관계가 얽히면서 공정경쟁거래법으로 규제하기가 어렵게 된다.⁶⁾

News Corp.는 Premiere를 희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News Corp. 산하에 있는 Fox사의 인기 시리즈 최신판 <로스트(Lost)>를 Premiere에만 독점으로 4월 9일부터 방영할 계획이다.⁷⁾ 이것은 Free TV에서 방영되는 것보다 6개월 빠르게 방영되는 것이다. 이 계획은 Premiere가 News Corp.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새로운 창구로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터넷 분야로 확장

Premiere는 2009/2010년 시즌부터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를 인터넷으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생방송 경기는 구독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시청할 수가 있지만, 매 경기마다 일정 정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PPV 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⁸⁾ 정기회원일 경우에는 할인을 해 줄 예정이나, 아직 확실한 요금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모든 경기가 인터넷 생방송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미지수이다. Premiere는 앞으로 4년간 독일 축구연맹으로부터 분데스리가 중계권에서 유선 TV에 대한 방영권과 인터넷 방영권을 획득했다.

벨루스코니의 반응

6) URL: www.digitalfernsehen.de/news/news_740686.html

7) “Fox stellt zum 1. April auf 16:9-Bildformat um-Deutschland premiere von **fünfter** „Lost“-Staffel”, 2009년 3월 2일자. URL: www.fox-channel.de

8) “Internet-TV: ‘Premiere’ will Bundesliga als Streaming im Web zeigen”, 2009년 2월 16일자. URL: www.infosat.de/Meldungen/?msgId=51622

이탈리아의 대통령이자 미디어 재벌인 실비오 벨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News Corp.의 소유자인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이 독일 방송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언론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비오 벨루스코니가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에 자신의 TV 사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5일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짜이퉁(FAZ)>에서 벨루스코니의 아들 피어 실비오(Pier Silvio)는 미디어 기업인 Mediaset는 유럽 시장을 놓고 머독의 News Corp.과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피어 실비오와 마리나 실비오(Marina Silvio)는 모두 이탈리아의 미디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독일의 Pro Sieben, ITV 그리고 스페인 유료 방송 플랫폼인 Digital Plus가 Mediaset의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어 실비오 벨루스코니는 <Corriere Della sera> 지에서 2012년까지 광대역 케이블 TV를 이탈리아 전역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Mediaset는 위성 텔레비전에 집중하기보다는 젊은 층을 위한 PPV가 가능한 디지털 지상파 서비스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Sky Italia는 정기구독으로 시청자들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머독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평했다.⁹⁾

● 작성 : 최은희(외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9) URL: www.infosat.de/Meldungen/?msgId=51779